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사순 제4주일  
2021. 03. 14. (나해) 제2259호

# 대주보



따뜻한  
겨울날  
행사를 가든한 성모님  
대현성당 2021.1.30

Bernard-

대현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2역대 36,14-16,19-23 **화답송** ◎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제2독서** 에페 2,4-10 **복음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 **복음** 요한 3,14-21 **영성체송** 예루살렘은 튼튼한 도성, 견고하게 세워졌나이다.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나이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나이다. 주님, 당신 이름 찬양하러 올라가나이다.

## 하느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우리

윤일본당 주임 | 주흥종 대건 안드레아 신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낙원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느님의 뜻을 어기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서는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여인의 후손이 악마를 이길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창세 3,15 참조) 오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인간의 배반이 반복됩니다. 가끔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용서하십니다. 때가 차자 결국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민수기 21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느님께 불평하자 진노하시어 불 뱀을 보내시고 죽음의 벌을 내리지만, 모세의 청원으로 구리 뱀을 높이 달아 그것을 본 사람은 살아나게 하십니다. 구리 뱀이 높이 들어 올리어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복음에서 말씀해 줍니다. 또한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의지를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고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사순 시기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시어 구원하시는 역사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빛이신 주님을 따라 어둠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함으로써 심판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끔 죄를 지음으로써 어둠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도 있지만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순 시기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없애고 빛이신 주님을 더 사랑하여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사순 시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궤**



## 노아 (창세 6,5-9,29)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강수원 베드로 신부

예수님의 족보상(루카 3,36-38), 노아는 아담의 10대손입니다. 원조의 범죄 이후 인간의 죄상이 극으로 치달아 마침내 모두가 타락하여 생각과 뜻이 악하기만 했던 시대에(창세 6,5,12), 노아는 “의롭고 흠 없는 사람으로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던”(6,9)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노아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홍수와 방주가 등장하는 잔혹한(?) 심판 장면을 떠올릴 뿐(6,9-8,22), 정작 이어지는 ‘새 창조와 노아의 계약’ 이야기엔(9,1-17) 소홀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노아와 홍수 이야기는 무엇보다 ‘구원과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마른 땅에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고(6,13-21) 그리고 그 방주에 온갖 종류의 짐승들을 데리고 들어가고(7,1-4) 하신 하느님의 억척스런 말씀 다음에는 언제나 놀랍도록 우직한 노아의 응답이 따릅니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6,22; 7,5). 이 짧은 단 한 줄의 문장이 지닌 무게는 실로 엄청납니다. 노아의 순종은 원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왜곡되고 손상되어버린 창조 질서를 하느님께서 다시 세우신 ‘새 창조’의 주춧돌이 되었으니까요. 창세기 저자는 “땅”과 “바람”과 “물”이란 소재들을 통하여 대홍수 사건(7,6-8,14)을 천지창조의 첫 장면(“땅”, “영”[숨, 바람], “물”: 1,2)과 연결시키고, 태초에 물을 갈라 궁창과 육지와 바다를 만드신 하느님께서 이제 다시 물을 뒤섞어 그 경계를 허물고(反-창조) 다시 세상을 재창조하셨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저 심판과 멸망이 아닌 이유는, 무엇보다 홍수 후에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에서 분명해집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9,7). 이 말씀은 첫 인류에게 하셨

던 축복(1,28) 그대로이며, 온 인류의 범죄조차 하느님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창조와 구원 의지를 바꾸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지요.

마른 땅에 거대한 방주를 짓는 노아가 받았을 조롱과 그럼에도 변함없던 그의 순종은, 사람들의 조소 속에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나무로 전 인류를 구할 구원의 방주를 지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앞서 보여주는 구약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단연코 노아는 예수님의 조상이라 불릴만한 믿음의 의인이며, 우리 신앙의 모범이지요.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을 믿으며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 옛날 맨땅에 방주를 짓던 노아 같아 보일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느님과 함께 살며 그분께 순명하는’(6,9; 6,22; 7,5) 한 의인의 삶이 자신과 가족들의 구원은 물론이고 인류의 구원을 가져오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라는 ‘대홍수’로 한 치 앞도 모르는 불안 가운데, 우리는 개인과 가정이라는 고마운 방주 속에서 믿음을 간직해왔습니다. 그러나 혹여 집에 머무는 데에만 익숙해져 성전의 제대 앞에 나와 미사에 참여하는 일에서 몸과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다시금 나와 가족들을 독려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홍수가 그쳤는데도 내리지 않고 꼭 막힌 방주 속에 머무르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지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느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일이었음을(8,20-22), 그때에 하느님의 새 축복과 구원의 계약이 주어졌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9,1-17). **필문**

## 교황 “사순 시기는 형제가 되어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2021년 2월 17일 바티칸 뉴스 | 번역 김호열 신부



사순 시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많은 시기다. 사랑이 첫 번째 원동력이지만, 이 특성이 교회 일치 운동의 차원과 서로 연관돼 있다면, 연대의 측면은 대화의 측면과 함께 작용하여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에게 마음을 열고, 모든 것에 앞서 우리가 추구하는 한 분이신 하느님 앞에서의 평화를 바라볼 수 있게” 할 것이다.

###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연대성을 장려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각은 매년 사순 시기가 시작될 때 “형제애 캠페인”에 참여해 온 브라질 신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안에 담겨 있다. 교황은 이날 시작하는 참회 기간(사순 시기)의 기본 가치들을 떠올리며, 우선적으로 특히 브라질에서 더 가혹한 코로나19 대유행의 현실을 언급했다. 교황은 메시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수많은 전문 의료인들의 사심 없는 봉사를 축복하시고, 선의를 지닌 사람들 간의 연대를 장려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며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돌보고, 우리 자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서로를 돌보도록 우리를 초대한다.”라고 말했다.

### 대화의 여정에서의 동반자

2021년 캠페인의 주제인 “형제애와 대화: 사랑의 헌신”은 브라질 내 그리스도교 교회들과 친교를 구하는데 초점을 뒀다. 지금은 보건 비상사태의 상황이지만, 이 대화는 이미 5년 전부터 시작됐다. 교황은 이를 “희망의 이유”로 정의했다. 교황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교회 일치를 위한 대화를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며 “아무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에게 마음을 열고, 모든 것에 앞서 우리가 추구하는 한 분이신 하느님 앞에서의 평화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세 가지 도구

이러한 존중과 나눔의 관계로부터 교황 회칙 『Fratelli tutti』에서 강조된, “형제애의 구축과 사회 정의의 수호에 대한 소중한 기여”가 나온다. 교황은 회칙 『Fratelli tutti』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전망 안에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자리한다고 말했다. 교황은 “우리는 분열을 극복하고 삶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 때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울러 이번 보건 위기가 끝나더라도 “광적인 소비주의와 새로운 형태의 이기적인 자기 보호”의 유혹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사순 시기의 도구들인 기도와 단식과 자선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한국 순교복자 124위 약전

한양의 역관 집안에서 태어난 최인철(崔仁喆) 이나시오는 교회 창설 초기에 형에게서 천주교 교리를 배워 열심히 신자가 되었다. 1795년 포도청에서 순교한 최인길 마티아가 그의 형이다.

1791년의 신해박해 때 이나시오는 형과 함께 체포되어 형조로 끌려갔다. 그때 형조에는 이미 여러 동료들이 끌려와 있었다. 이후 이나시오는 동료들과 함께 협박과 회유, 형벌을 번갈아 받아야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형 최인길과 몇몇 신자들은 이에 굴복하였지만, 그만은 끝까지 신앙을 증거하였다. 그러자 형조에서는 그에게 누우칠 기회를 주기 위해 3일 동안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나시오가 집으로 돌아오자 늙은 어머니와 형제들은 눈물로 호소하면서 배교를 권하였다. 이에 그는 다시 형조로 들어가서는 ‘천주교를 믿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돌려 “비록 매를 맞아 죽는다고 하더라도 천주교를 사악한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신앙을 증거하였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임금의 회유를 받아들여 ‘천주교를 믿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석방되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나시오는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쳤다. 그리고 다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온 형과 함께 교회 일을 도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특히 형 최인길은 중국인 주문모 야고보 신부의 영입을 위해 힘썼으며, 신부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 집을 매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주 신부의 피신을 돕고 자신은 체포되어 순교하였다. 형이 순교한 뒤 이나시오는 교회 지도층의 일원이 되어 더욱 열심히 교회 일에 참여하였다. 그는 신주를 불살라 버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으며, 동료들과 함께 교리를 연구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데 열중하였다. 또 주문모 신부가 위험할 때마다 그 피신을 돕기도 하였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최인철 이나시오는 외숙모의 집으로 피신해 있다가 체포되었다. 이어 그는 포도청과 형조에서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비록 죽음을 당할지라도 천주교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단언하였다. 오히려 그는 관리들 앞에서 천주교 교리를 설명해 가면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역설하기까지 하였다. 그러자 형조에서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죄목을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하였다.

1791년에 ‘천주교를 믿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저버린 죄 / 1795년에 형이 죽은 뒤에도 천주교를 신봉한 죄 / 동료들과 함께 천주교 교리를 널리 전파한 죄 / 체포된 후에도 천주교 교리를 훌륭하다고 설명한 죄 / 주문모 신부를 영입하고, 그를 섬긴 죄

이에 따라 이나시오는 동료들과 함께 서소문 밖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01년 7월 2일(음력 5월 22일) 이었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최인철 이나시오**  
(? ~ 1801년)

총 상금 2,000만 원 / 대구대교구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제곡

# 창작성가 공모

2021. 3. 19. ~ 9. 30.

공모부문 : 교회 전통음악 / 가톨릭 생활성가

참가자격 :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시상내역 : 대상(1명) 500만 원

최우수상(2명) 300만 원

우수상(2명) 200만 원

장려상(5명) 100만 원

문의 :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6~9 또는 이메일(pr@dgc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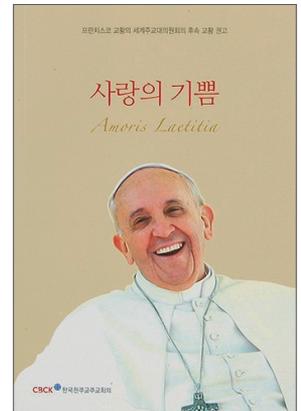
※ 자세한 사항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홈페이지(www.daegu-archdiocese.or.kr)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제곡 창작성가 공모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를 시작하면서

2021년 3월 19일, 교회는 가정의 사랑의 아름다움과 기쁨에 관한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반포 5주년을 기념하면서, 2022년 6월 26일까지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를 지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해의 목표는 교회가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에 관하여 성찰하고 깊이 숙고하여 풍요로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교우들이 3월 21일(사순 제5주일)부터 연재되는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의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사랑으로 가정생활을 돌보라'(7항) 하느님의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미사 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3월 15일(월) 10:30 범어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3월 18일(목) 10:00 평화성당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3월 15일(월) 11:00 계산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3월 20일(토) 11:00 월성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3월 15일(월) 11:00 죽도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3월 20일(토) 11:00 성모당

### 성소 | 피정

####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자 초대

대상: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 있는 미혼 여성  
문의: 노아 수녀, (010)9353-1773

####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개별 상담

대상: 국내외의 선교와 봉사에 관심  
있는 39세 이하의 미혼 여성  
문의: 강피아 수녀, (010)3679-7198

####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3.20(토) 14:00  
장소: 개화동 수도원(서울)  
문의: (010)3800-1579

### 효령하늘집 피정

개인, 단체: 언제나  
산내 치유: 3.16(화)~17(수)  
시니어: 3.23(화)~24(수)  
문의: (054)382-0091

#### 해독, 효소단식 성경 통독 피정

몸을 해독하고 말씀으로 채우는 힐링시간  
일시: 3.25(목)~28(일) 3박 4일  
장소: 성모솔숲마을  
문의: (054)373-3955 / (010)6630-3816

####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디비나 입문 피정

일시: 4.15(목)~18(일)  
장소: 양평 까리파스거단길 피정의집  
지도: 허성준 신부  
피정비: 35만원 / 32명(1인실)  
신청: 왜관수도회, (010)8599-3127

### 교육 | 모집 | 기타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전인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670-5959

## 대구대교구 SNS 안내 (Social Network Service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카카오톡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코리아알트만**  
38년 전통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털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053-743-4488  
M. 010-3530-7467

개원 36년  
**달성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아토피·만성피부·여드름  
성형외과 전문의 눈물 지방·피지낭종  
손재경(다미아노) · 김인주(레지나) · 서우태(루카)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3번출구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기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미래셋증권대우 9층  
☎ (053)257-8875  
www.kisaneye.co.kr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만철(바오로)  
하중순(요안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빛 사랑 후원회원 모집**  
월간 <빛>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빛사랑>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가입안내 및 특전  
▶ 1인 1구좌 이상 가능, 1구좌당 매월 10,000원  
▶ 후원회원을 위한 월 미사 봉헌,  
원할 소득공제용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 문의 053)250-3158, 252-5392

포장이사는  
**천사의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보건복지부 인종의료기관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명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3요한 1,2)  
**전인병원**  
[대표전화] 1688-7667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김성환(빅토리노) 신부  
1982년 3월 19일
- 박도식(도미니코) 신부  
2003년 3월 20일
- 여동선(빅토리오) 신부  
1944년 3월 20일

행사 | 모임

**2021년도 예비신학교 입학 및 개학미사**  
일시: 3.14(일) 14:00 중1~대학·일반  
1~5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성당  
\*교구 모든 예비신학생을 위한 미사  
(학부모님도 오실 수 있습니다.)

**전례꽃꽂이연구회 월례회(사순 피정)**  
일시: 3.15(월) 10:00~13: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주제: 무엇이 나를 살게하는가?  
강사: 박광훈(안드레아) 신부  
문의: (010)2780-4535

교육 | 모집

**4월 카나 혼인 강좌**  
일시: 4.11(일) 10:00~13:30(시간엄수)  
장소: 교구청 내 별관 대화합실  
참가비: 2인 3만원(사전 신청) 무료주차  
신청: 본당 사무실  
마감: 4.1(목)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2021년도 1학기 가톨릭신학원 수강생 모집**  
성경과 가톨릭 신학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강좌를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필요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교육합니다.

개강: 3.1(월)  
문의 가톨릭신학원, 660-5105

**청소년 무료 자격증 취득, 진로체험 모집**  
1차: 3.15(월) / 2차: 수시  
대상: 학교 밖, 후기 청소년  
과목: 드론, 요리, 가죽공예, 네일아트, 바리스타 / 문의: 474-4840  
주최: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

**제32기 대구가톨릭대 차이나포럼 원우 모집**  
개강: 3.29(월) 19:00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명사특강, MT, 졸업여행 등  
수업료: 120만원(6개월 과정)  
문의: 원장 김영택, (010)9494-8169

**부부 둘만의 힐링여행 대구ME 주말**  
385차: 4.23(금)~25(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일반(구약과 신약): 목 10:00, 19:30  
다시 읽는 구약성경(통독반): 수 14:30  
심화(성문서): 월 10:00, 19:30  
문의: (010)3311-2672 / (010)3475-3431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공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채용 | 안내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채용**  
인원: 2명  
상세: 교구 홈페이지 참조  
마감: 3.19(금)  
문의: 710-1391

**칠곡가톨릭병원 건축기사 채용 공고**  
업무: 신축병원 설계 발주 등  
우대: 건축시공 또는 감리 10년 이상 경력자, CAD 가능자  
문의: 총무팀, 320-2121

**가톨릭피부과의원 진료 안내**  
58년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진료분야: 습진, 무좀, 아토피, 건선, 여드름, 탈모, 알러지, 레이저 시술 등  
문의: 320-2000

**2021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문의: 250-3048~9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선 데보라

난청·이명은 밝은귀보청기&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 서문시점 010-6481-8848

U&I 유앤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경임 (아네스)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관절통, 스포츠 통증, 프로로 재생 주사, 도수 치료  
통증의학전문의 원장 정승우 (요셉)  
범어네거리 두산위브더제니스상가 3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8번 출구)

HS 히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상운(안젤로) 송정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대구연세안과 백내장/노안/라식/녹내장/망막질환  
대표원장 (현 연세대 외과교수) 박중원 (소시오) 안과전문의 서재신(베드로)·장주현(비버안나) 수성구보건소 맞은편 대동M타워 4~6층 ☎ 053) 626-8881~5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 전문 경대병원 응급실 건너편 T. (053)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